

# 비약과 꿈을 상징하는 龍

- 戊辰年을 맞으며 풀어보는 傳說 -



안 도 섭  
(산업환경신문사 편집국장)

올해는 「戊辰年」으로 龍해다. 龍은 실재(實在)한 짐승이 아니라 봉황(鳳凰)과 더불어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상상적 동물이다. 그래서 이 용에 얽힌 민화·설화·전설 등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성취와 비약과 꿈을 상징하는 용은 힘이 세고 불과 비를 다스리는 영물(靈物)로서 신라·고려·이조시대에는 호국(護國)을 상징하는 서수(瑞獸)로도 알려져 왔다.

본디 용은 고대의 인도와 중국에서 싹튼 동양의 상징동물이다. 모양은 파충류로 큰 뱀과 같으나 몸에는 비늘, 두 뿔, 네 발이 달려 있고 물속에서 오랜 세월을 수양하면 날개가 돌치고 여의주(如意珠)를 얻어 때로는 물속에서, 때로는 공중에서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전지전능의 동물로 믿어 왔다.

등룡(登龍)이라는 말이 급

제와 성취에 대한 상징으로 쓰여 온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인도의 용은 조룡(鳥龍)과 포룡(圃龍)의 두 가지인데, 중국의 용은 교룡(蛟龍)을 비롯한 5종이 있고, 불교에서는 선·악 두가지 용으로 구별, 선룡(善龍)은 사람을 불법(佛法)에 귀의 시키고 단이슬을 내려 오곡을 익게 한다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사상 기록에 나타나 있는 용은 중국적인 것, 불교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 용이 사는 터전에는 그 용을 쫓아내고 절을 짓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중국의 문헌에는 용은 비를 내려주는 동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널리 전해 내려온 전설이다.

동양에서는 특히 권세의 상징, 왕(王)의 상징 또는 휘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용안(龍顏), 용좌(龍座) 등이 모두 이에 연유된 말이다. 용은 또한

제왕(帝王)을 상징하기도 해서,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勤政殿) 천장의 채화(彩畵) 사이를 꿈틀거리는 두 마리의 황룡(黃龍)은 제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서는 왕실용 용은 발톱이 5개이고 일반 민간용은 발톱 4개 이하로 표현하는 것이 자못 흥미롭다. 훗날, 용은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발전, 용왕(龍王)으로 받들면서 풍어, 풍농, 강우, 출산과 수군(水軍)들은 승전도 빌었다.

예로부터 건축·공예에 용의 그림과 조각은 슬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용틀임」이란 말이 이를 잘 뒤받침해 준다.

우리나라에서 용의 미술품으로는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도(四神圖)에 나타난 청룡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용은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전해 오는 전설적인 동물이다. 하지만 서양에서 부르는 용의 개념은 「Dragon」으로 사람을 해치는 용 즉, 우리나라의 「이무기」를 뜻한다. 서양의 용이 공포와 악마의 동물인 데 비해 동양의 용은 완전한 인격의 화신으로 승화된 동물로서 인간의 꿈을 성취시키는 상스러운 짐승인 것이다.

흔히 절에 걸려 있는 범종(梵鍾)을 보면 그 몸뚱이에는 용틀임이 있고 종대(鍾臺)에

도 용의 머리 모양이나 비늘 무늬가 새겨져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동쪽을 청룡, 서쪽을 백호라고 하며, 북쪽에서 남쪽을 내려다 보면서 좌청룡·우백호라고도 말한다.

용해는 그 방향에 따라 띠 빛깔의 용이 지배하는데 동쪽은 청룡이, 서쪽은 백룡이, 남쪽은 적룡이, 북쪽은 흑룡이 지배하며 중앙은 황룡이 지배한다는 음양오행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앞서 동양에서는 용이 완전한 인격의 화신으로 즉, 천자(天子) 황제의 상징으로 여겨왔으며, 용에 얽힌 전설 또한 적지 않다.

고려조의 왕씨(王氏)는 용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할아버지가 용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전하며,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의 비(妃)가 용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전한다.

고려사에는 고려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는 그의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란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난다.

그가 한창 바다를 향해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큰 풍파가 몰려와 바닷물을 뒤집어 놓는다. 그러자 뱃사공이,

「이중에 배를 타서는 안될

사람이 섞여 있으니 모두 옷을 벗어 바다에 던지시오」

하고 소리친다. 모두 옷을 벗어 바다에 던졌으나 뉘누리는 가라앉지 않자 왕건의 할아버지 때문이란 것을 알고 섬에 내릴 것을 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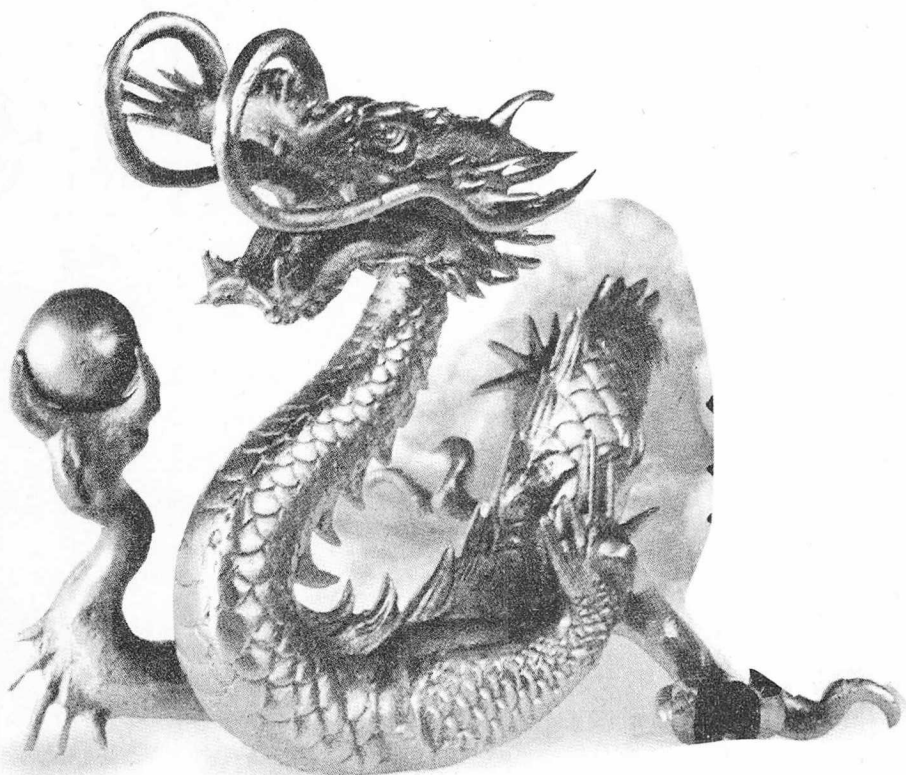
섬에 내린 왕건의 할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용 한 마리가 나타나

「날 좀 도와 주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그 용을 도와 주었더니 그 용은 그를 용궁으로 데리고 가서 용왕(龍王)의 딸과 혼인을 맺어 준다.

이렇게 혼례를 치른 왕건의 할아버지와 용왕의 딸은 몰로 나와 살림을 차린다. 그런데 용왕의 딸은 모든 것을 그에게 허락하되 자신이 목욕하는 장면만은 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한동안 그 약속을 지켜 갔지만, 하루는 하도 궁금해서 그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엿보았더니 그녀는 용의 모습을 하고 목욕을 하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안 용왕의 딸은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다시 용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몇 있었는데 그 아들의 거드랑이에는 용의 비늘이 돌아 있었다고 전한다.

또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왕후 알영(閼英)은 계룡(鷄龍)의 딸이다. 계룡이 용의 몸에 닭의 머리를 단 것인지 닭의 몸에 용의 머리가 있는 것인지는 밝혀 있지 않다. 용의 날개를 뜻하는 한자어로 「龍翰」이라는 말이 있는데 「翰」은 닭의 날개같은 형태가 아니고 길고 큰 털(毛之長大者也)을 뜻한다.

박혁거세가 탄생한 날은 BC 69년 3월 1일이 된다. 같은 날 알영우물에서 계룡이 나타나 동녀 하나를 왼편 갈비에서 낳았다. 또는 용이 나타나 죽으므로 그 배를 갈라 동녀를

꺼냈다는 설도 「삼국유사」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 혁거세와 알영은 13세 때 (BC 57년) 왕과 왕후가 되고 서라벌이 건국된다.

신라 제30대 문무왕과 용의 관계는 현실적인 인간의 염원과 신화가 얽힌 민간전설이다.

문무왕은 지의법사(智義法師)에게,

「내가 죽은 후에 호국대룡이 되어 불교의 진리를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사는 「용은 짐승인데 무슨 보답할 만한 말을 할 수 있겠음

니까?」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상의 영화를 싫어 했으니 짐승이 되어서라도 국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라고 대답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감은사(感恩寺) 사중기(寺中記)에는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려고 그 절을 짓다가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고 적혀 있다.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神文王)이 682년에 감은사를 준공시켰는데, 금당(金堂) 섬돌 밑에 동쪽 바다로 향한 구멍을 뚫었다. 유소(遺詔)

에 따라 화장한 뼈를 장사한 대왕암을 중심으로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의 화신이 드나들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해 5월 1일 동해에서 조그만 산이 떠서 감은사 쪽으로 들어왔다.

신문왕의 명에 따라 점을 친 일관(日官) 김춘질이 왕에게 아뢰었다.

「문무왕이 용이 되어 나라(三韓)를 평화로이 지키고 김유신공은 하늘나라(三三天)의 한아들로 대신이 되었는데…… 이제 폐하가 국가를 지킬 보배를 주시려고 하니, 만일 바다에 나가시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큰 보배를 얻게 되십니다」

문무왕은 경주를 떠나 5월 7일 감은사 바닷가로 갔고 7일간의 비바람을 겪은 끝에 16일 배를 타고 섬에 올라 용을 만난다. 용은 왕에게 옥띠(玉帶)를 주고, 그 산(섬)에 난 대나무를 가리켜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리도록 일러 주었다. 그대로 만든 것이 만파식적(萬波息笛)이다.

그런데 용이 준 옥띠의 여러 쪽이 또 모두 진짜 용이었다. 신문왕이 대궐로 돌아오는 길에 태자의 말대로 왼편 들췌 쪽을 시냇물에 넣었더니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그 자리에는 못(龍淵)이 파졌다

한다.

이성계(李成桂)의 건국신화에도 용과 얽힌 이야기가 있다. 함흥땅에 적지(赤池)라는 못이 있는데, 어느날 그의 꿈에 황룡 한 마리가 나타나

「내가 이 못에 살고 있는데 인데 판 흑룡이 나타나 나를 내쫓으려 하니 활을 쏘아 그 흑룡을 죽여 다오」

하는 것이었다. 비록 꿈이기는 했으나 하도 신기해 다음날 정오에 그 못으로 가보니아니 다름까 황룡과 흑룡이 맞붙어 싸우는데 어찌나 무서운지 이성계는 활을 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 황룡은 며칠을 두고 밤마다 꿈에 나타나 흑룡의 꼬리를 활로 쏘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며칠을 망설이다가 흑룡의 꼬리를 향해 이성계가 활을 쏘았더니 붉은 피로 토하며 흑룡은 도망쳐 버렸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연못은 적지(赤池)가 되었다. 그 흑룡은 그때 99굽이를 돌아 굽이굽이 두만강으로 달아났는데 지금도 두만강에는 용의 자취대로 99곳의 굽이가 남아 있다고 전한다. 또한 그 99굽이에 한 굽이만 더 보태 1백굽이가 되었으면 이성계는 함흥에 나라의 도읍을 정했을 터인

데 한 굽이가 모자라 함흥땅에 도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백제에서는 금강(錦江)에 용이 있어서 당군(唐軍)이 수로로 들어오다가 피해를 보아 백마를 미끼로 삼아 용을 낚았기 때문에 백마강과 조룡대(鳥龍臺)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전한다.

용녀(龍女)가 호수 속에서 사람을 유혹한 이야기로는 개성의 박연폭포(朴淵瀑布)가 있다.

또한 용해의 세시풍속에는 선날 이른 새벽 우물에 가서 「용알 뜨기」하는 풍속이 전해오고 있다. 선날 용이 우물에 알을 낳고 그 알을 뜬 사람은 한햇동안 복과 즐거움과 부귀가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바닷속에는 용궁이 있다는 <토끼전>도 있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웅덩이를 용이 사는 것이라 하여 용추(龍湫)라 부르기도 한다.

열두 해만에 다시 맞는 용해 전설과 술한 설화속에 인간의 염원과 꿈을 잉태해 준 상상동물인 용의 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간절한 꿈이 영글기를 빌어본다.\*